



제목	페르시아 카펫과 이란 문화의 정체성 연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6-3)
발행일	2016. 10. 31.
저자	유달승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51-67
ISBN 또는 ISSN	1226-2811

**내용 요약**

이란인들에게 카펫은 생애 최초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이란인들은 어릴 적부터 카펫 위에서 미와 예술을 배운다. 이란에서는 카펫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술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카펫의 디자인은 오랜 세월을 거처서 수정되고 검증되면서 발전해왔고 오늘날 이란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한정된 주제에도 불구하고 카펫 디자인은 형태와 구성요소를 조금씩 변화시켜왔다. 페르시아 카펫은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공화국은 이슬람 디자인과 정치적인 주제를 강조했지만 페르시아 카펫 디자인의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란에서 카펫 산업에는 약 2천2백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카펫 직공들은 약 8천8백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4.6%에 해당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카펫은 비석유 부문으로 이란의 최대 수출품이자 이란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란에서 카펫 직조는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이다. 또한 이란의 카펫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페르시아 카펫은 색채의 풍부함, 패턴의 다양성과 우수한 디자인으로 다시 명성을 얻고 있다.